



월간규문 2·3월

합본호

헬로, 큐피

元一の樂樂

놈놈놈! 1탄

소설 읽는 수경

이달의 선물

미영쌤, 고전을 만나다

마일즈 데이비스 [Kind of Blue]

특이한 놈, 백이

후안 룰포, [불타는 평원]



미영 쌤, 고전을 만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영 쌤은 내게 왠지 안정적인 중년이었다. 실은 그녀도 고백하기를 ‘요즘은 정말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고.

“으, 30대 때를 생각하면...”

아무튼, 내게는 쌤이 어떤 고민들을 했었고, 어떻게 헤매고 했었는지는 추측해보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떤 이에게 어설픔고 혼란한 시절이 없었을까. 또, 어떤 이가 나름의 고충이 없을까.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나는 쌤의 그와 같은 면모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쌤의 공부의 역사라 할 만 한 것을 소개해볼까 한다.(거창한 것은 아닙니다만요^^) by 수영

여성회관에서의 우연

미영 쌤이 고전 공부를 시작하고, 연구실에 접속하게 된 것은 전에 다니던 여성회관에 걸려있었던 한 플랜카드 덕분이었다.

미영 쌤 : ‘18세기 조선 지성사 산책, 연암과 그의 친구들’, 어 이 제목이었을 거야. 문성환 쌤 강의였지? 여성회관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왠지 들어야겠다 싶더라고. 전에 학교에서 독서토론 지도를 했으니까 「양반전」이나 「호질」, 이런 책들은 읽어 봤어. 그렇다고 진짜 그 사상(연암 및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은 모르잖아. 애들이랑 ‘다산초당’ 이런 데 다니기도 했었는데, 관련된 책들은 진짜 읽어본 적은 없지. 왠지 모르게 들어야겠다 싶었어.

강의 듣고 책을 읽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야. 박제가, 홍대용, 이옥... 이런 사람들 글을 보는데, 글이 정말 아름다워. 고리타분한 선비, 조선유학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딱 깨지더라고. 이렇게 명문이 있는데 왜 여태 공부를 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미영 쌤은 곧 당시 남산강학원에서 진행되던 다른 강의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의 공부로 이어진다. 미영 쌤, 추진력이 있으시다! 하지만 이 추진력, 괜한 것은 아니다. 쌤의 대학시절이나 결혼생활들을 듣다보면, 그에게 어쩌서 공부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갈팡질팡의 날들

미영 쌤 : 가던 길에서 어쨌든 방향을 틀었는데, 뭔가 길이 안 보이는거야.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확 무너지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나 좋다는 사람 있으니까, 그냥 그럼 결혼하자. 결혼 뭐 별건가, 그냥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

쌤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노동운동에 헌신했다는 그 시절을 통과했다. 덕택에 야학을 하고, 공장에 다니며 노조를 조직하는 그런 ‘당연한 코스들’을 밟았다고. 하지만 그런 시기가 끝나고 쌤은 막막한 상황에 직면한다.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또 생계에 뛰어들게 되고. 그 와중에 잠시 흥미가 생겨 디자인을 공부한 일도 있다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된다. 물론 그렇게 시작한 결혼생활, 열심히 하긴 했다.

미영 쌤 : 어, 결혼 하고 나서는 또 열심히 했지.(^^;) 시작하니깐 이것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그런 걸 버렸는데, 젊었을 때는 뭐 한다면 밤잠도 안 자고 그런 게 있었거든, 내가 정한 그 기준을 딱 맞추려고. 그래서 막..... 그러고 보니 ‘한식 조리사’, 그런 것도 땀. 우리가 큰집이거든, 손님들이 많이 와. 나는 그 전에 내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고 해서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요리쯤이야. 근데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까지 딴 거야. 나도 참.(^^)

미영 쌤 : 근데 뭐랄까, 공허하고 그런 게 또 생겨. 애들 밥해주고, 살림하고..... ‘이게 나인가’ 싶고. 뭔가 아쉽고. ‘이게 다가 아니다’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랬어. 또 마침 경력단절 여성 지원책, 이런 게 생겨서 교육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거든. 평생교육센터 이런 것들. 집 근처에도 여성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학습코치 동아리라는 걸 만들어 활동을 하고 그랬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내 또래라서 공감대가 있고 그랬거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각종 생계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 와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고민, ‘제대로 살고 싶다’하는 마음들이 이어진다. 그렇게 과정에서 고전 공부도, 새로운 친구들도 계속 만날 수 있었던 것.



지금의 공부

미영 쌤, 요즘은 어떠신가.

미영 쌤: 개인적으로는 요즘이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아. 몸도 아프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고민했던 것들에서도 조금은 놓인 것 같고 마음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애.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잘하고 칭찬받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에는 알게 모르게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도 좀 편해졌고. 애들도 많이 컸고. 어찌 보면 공부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아. 아, 근데 또 딱히 엄청 힘든 게 없으니 어째 공부하는 데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영 쌤: 공부하고 같이 글을 쓰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못 나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잖아. 그걸 또 넘어가고 잘하고 싶고 하는 마음은 드는데, 또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지. 나는 토론하고 그럴 때 아직 힘들더라고. 다들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내 또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연구실도 연구실이지만 전에 여성센터나 그런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도 만남을 이어가게 돼. 거기서 고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연구실 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꼬시기도 하고. 잘 안 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기며 쌤은 새로운 안정기와 새로운 과도기에 있는 것일까. 우리 연구실의 많은 쌤들이 그러하듯이 한편으로는 온갖 집안일로 바쁘고, 그 와중에 또 틈틈이 가족들과 실랑이를 해가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집에서 사부님은 말하기를, “거 박사논문은 언제 나오나~?” 돈도 안 되는 공부한다고 핀잔하는 남편을 이래저래 방어하고 “곧 나온다!” 큰 소리를 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 공부에서 부닥치는 문제들로 답답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의욕이 솟았다가 다시 또 문제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렇다. 덧붙여, 본인 같은(?) ‘무지렁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있습니다~0~)

어쨌든, 본인 공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또 같이 공부할 친구를 구하는 마음에서 쌤의 공부 의욕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나 역시 같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쌤, 우리 열공합시다요!

元一の樂樂

樂樂은 음악을 즐기다(락악), 즐거움을 음악하다(악락), 즐겁고 즐겁다(락락), 음악을 흔들어라(Rock樂) 모두를 의미하는, 원일샘의 음반소개코너입니다~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1926.5.25. ~ 1991.9.28)

1959년 콜럼비아 레코드 음반 《Kind of Blue》



참여 연주자

Miles Davis- trumpet

Julian "Cannonball" Adderley- Alto Saxophone(except #3)

Paul Chambers- Bass

James Cobb- Drums

John Coltrane- Tenor Saxophone

Bill Evans- Piano(all others)

Wynton Kelly- Piano(#2)

재즈 트럼펫 연주자 마일즈 데이비스는 그의 음악과 삶을 통해 오늘날 재즈라는 단어 자체를 표상하는 불멸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시대의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일즈도 마약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과의 애정행각은 물론 때로는 폭력적인 언행으로 그에 대한 인상을 얼룩지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만은 평생 동안 엄격함과 냉소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추구했던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그가 남긴 재즈 음악을 듣다보면 신선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의 향기에 빠져들게 되고 새로운 음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 마일즈 데이비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설적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밴드가 이룩해낸 《Kind of Blue》의 음악들은 아름답고 몽환적이며 깊고 완벽한 연주로 가득 차 있다. 마일즈 특유의 뮤트 트럼펫 사운드는 변신한 마일즈 데이비스 자체가 되어 들려온다. 드러머 제임스 코브는 《Kind of Blue》에 수록된 음악 전체가 천상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 자평하기도 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든 상관없이 이 앨범이 재즈 음악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앨범 레코딩 작업 과정에서 모든 곡들을 첫 번째 테이크의 녹음을 취하기로 의도했고 한 곡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렇게 음반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사전에 정확한 악보도 없는 음악의 첫 번째 테이크를 선택한다는 것은 연주자들 직관에 의한 완벽한 경지가 아니라면 우연적으로 발생한 음악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음반을 감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 각 연주자들의 연주가 거의 모두 완벽하다는 점이다. 클래식 음악계의 지휘자 카라얀처럼 유독 음악 녹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마일즈가 남긴 수많은 명반들 가운데 《Kind of Blue》는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찬사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앨범이다.

첫 번째 트랙은 그 유명한 〈So What〉이다. (그러니까 곡 제목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음악은 정해진 코드가 따로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사람들 질문에 마일즈가 한 대답이 ‘So What’ 이었고 이 대답이 곡 제목이 되었다는 다소 근거가 희박한 후문이 즐겨 회자된다.) 재즈 뮤지션들 사이에선 너무도 유명한 인트로의 피아노 솔로와 베이스 루프의 주제 제시부를 지나 터져 나오는 우아하고 경쾌한 마일즈의 트럼펫 솔로 연주,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존 콜트레인의 연주로 이어지는 부분은 한마디로 절대 경지!

재즈음악 역사에서 《Kind of Blue》 앨범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재즈화성의 복잡한 변화를 떠나 간결한 음악적 모드(mode)를 중심에 두고 펼쳐낸 선율들의 향연에 있다. 이를 ‘모달-재즈’ 기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간결함 속의 풍성함은 연주자들의 완벽하고도 고도의 연주능력 덕분에 가능했다. 이 말을 반증하듯 마일즈는 이렇게 얘기했다. “멜로디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불어대고, 다시 또 멜로디를 연주하고, 그러면 나면 끝. 이게 재즈 연주다.” “하나의 솔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작곡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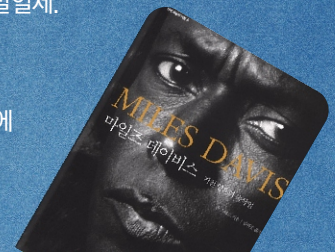
이미 마일즈 밴드를 떠나 독자적 활동을 펼치던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는 《Kind of Blue》 녹음 작업의 편곡을 맡으며 다시 전격 선택되었다. 빌 에반스는 이 앨범 작업을 거의 마일즈와 함께 창작 해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빌과 마일즈는 서로에게 가장 큰 음악적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이기도 했다. 빌은 앨범의 창작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다. “편곡에 있어 단순성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Freddie Freeloader〉나 〈So What〉, 그리고 〈All Blues〉등 어느 곡 하나 빠짐없이 구체적인 악보 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 번져나가기 시작한 모달-재즈의 모던하고 단순한 구성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 미니멀리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미니멀 음악 작곡가로 분류되는 테리 라일리, 라 몬테 영, 스티브 라이히, 존 애덤스 등이 바로 그들로, 이들은 모두 《Kind of Blue》를 수없이 듣고 채보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음악에 직접 인용하기도 하며 그들 각자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미니멀리즘 음악의 영토를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다.

새로운 음악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던 마일즈 데이비스의 한결같은 의식은 다음의 말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민속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될 뿐이지. 박물관이나 시골 장터 같은 데서 연주하는 그런 놈들 말이야. 음악과 사운드는 언제나 온 나라를 넘나들게 마련이고, 전에 머물던 곳이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 기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돼.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대중들은 일단 곡이 시작되면 혼란스럽게 전개되다가 종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하지. 하지만 모든 걸 그렇게 무 자르듯 쉽게 나눌 수는 없어. 내 음악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연주해주길 원해.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자리에 머물러 썩게 되지. 처음엔 좋아하는 것만 연주한다고 박수를 보내다가도 어차피 사람들은 언젠가 지겨워하게 마련이야. 어떤 식의 연주자라고 한 번 정해지면, 다른 걸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일세.”

재즈 음악뿐 아니라 20세기 음악사에서 음악인들에게 가장 큰 영감과 영향력을 끼친 음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Kind of Blue》를 다 듣고 나면 평온한 침묵과 푸른 고요가 우아하게 주변 공간에 스며드는 것 같다. 이는 앨범 전체를 들어 봐야만 경험된다.



아티스트의 말 인용:

현대예술의 거장 시리즈 6 『마일즈 데이비스 - 거친 영혼의 속삭임』 (존 스웨드 지음/김현준 옮김 /을유문화사)

반드시 봐야만 하는 마일즈 데이비스의 생전 라이브 연주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zqNTtOGH5c>

놈놈놈! 시리즈 1탄!

특이한 놈, 백이



수양산에서 고사리 뜯는 백이와 숙제 : 宋代(송대) 화가 李唐(이당 · 1066~1150)의 采薇圖(채미도)

사기史記에는 정말 다양한 인간군상이 등장한다. 열전의 첫 편은 정의의 이름으로 폭군 주紂를 처단하려 가는 무왕의 길을 막은 백이가 등장한다. 무왕의 말고삐를 잡은 사람은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 그가 무왕에게 질문한 것은 이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것을 효孝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가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인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아버지 장례도 마치지 않고 정벌 전쟁을 하는 것이, 그리고 아직은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치러가는 것이 무왕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왕은 그런 마음을 애써 감추고 역사에 길이 남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로 폭군 주紂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사마천은 무왕과 주공 단, 태공망이 등장하는 주본기周本記에서는 백이를 등장시키지 않는다. 주본기를 읽으며 격하게(?) 정의의 길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열전列傳에서 진격의 대열을 막아 선 백이를 읽으며 묘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새롭게 요동친다.

때문에 백이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여러 문장가들이 한번은 글의 소재로 삼은 명장면이 되었다. 당나라 때 문장가 한유는 백이송伯夷頌에서 모두들 성인의 길이라 했던 무왕의 행군을 막은 백이가 없었더라면 후세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치는 자식들이 연이어 나왔을 것이라며 특립독행特立獨行한 사람이라 칭송했다. 연암 박지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백이’를 두 편이나 써서(백이론 상하)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했다. 왜 백이는 무왕의 사업을 반대했는지, 왜 무왕은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백이의 충절은 포상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한다. 연암은 정벌 전쟁의 주체인 무왕이나, 폭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억압 당한 사람들(비간, 미자, 기자) 그리고 무왕에 반대한 백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운명에 충실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 내가 읽기에 백이는 이 사건을 묘하게 진동시키는 특이점으로 보인다. 각자의 입장이 백이를 통해 다른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상한 어떤 점. 자기가 나설 만한 위치가 아님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행차를 막았고, 폭군 주紂를 위해 충심을 다해 간언한 것도 아니면서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무왕에게도 반대한다. 그는 “**폭력으로 폭력을 막았다以暴易暴**”는 말로 세상의 평화는 강한 폭력 하에서 얻는 것임을 처음으로 예견한 사람이다. 무왕에 반대하는 백이는 주紂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왕을 위해서 너의 정당성을 의심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완벽하게 옳은 사람은 없다. 너의 옳음은 상대를 악으로 만든 다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기자를 은나라의 마지막 충신으로 알고 있지만 기자는 미친 척 하면서 주紂를 피하고 태공망이 구제해 주기를 내심 기다렸다. 그리고 보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충신도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가 엉망진창 일 때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일까? 무조건 나라를 보존하고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면 역사에 새 나라, 새 왕조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세가 기울었다며 새로운 세력을 위해 앞장선다면 간신배나 앞잡이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물을 게 아니라 그의 선택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단정하기 전에 우리는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편인지 저 편인지를 택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할 것 같다. 자기 선택에 여러 가지 신념과 정당성이 있었다고 믿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택 이후 덧붙여진 것이다. 백이가 무왕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충고였던 것 같다. 그것을 안다면 나의 옳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더라도 교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타인의 선택에 대해 비난으로 일관하지도 않을 것 같다. 연암이 각자의 운명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말이 아닐까 한다.

주본기의 하이라이트인 무왕의 정벌전쟁을 지나 세가世家에서 강태공과 노주공의 혁혁한 업적을 경배하고 나서 백이 열전에 오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마천이 역사를 쓰는 독특함은 여기에 있다. 하나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점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글쓰기! 사마천은 역사에서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여긴 사람들의 일생을 열전으로 묶었다. 그 맨 앞머리에 백이를 놓음으로써 인간사는 옳고 그름으로 단정될 수도 없는 것이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또 다르게 읽히며,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보잘것없는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역사상 첫 정복전쟁을 지금껏 생동하는 역사로 만들어 놓았다. 이후로 모든 역모와 반역사건에는 이들이 등장한다. 그대는 무왕인가? 폭군 주紂인가? 섭정의 대가 주공인가? 권모술수의 본좌 태공망인가? 설마 그대가 백이라 여기는가? (^^)

무왕의 은나라 정복 전쟁은 백이라는 특이점이 없었다면 아마도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신념으로 포장한 재미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서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천은 백이를 통해 “천도가 있느냐”고 질문했는지도 모르겠다. 3천여 년 전의 일을 여전히 “사건화”하고 있는 이상한 진동점. 다시 묻는다.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by 제리

소설 읽는 수업

어떤 끔찍한 혁명가(歌) — 후안 룰포, 『불타는 평원』



십여 년 전 후안 룰포의 장편소설 『빠드로 빠라모』를 읽고 느낀 놀라움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작년에 그의 유일한 단편집 『불타는 평원』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는(드디어!) 사실이 반갑기 그지없었다. 즉각 책을 주문했고 도착한 뒤부터 한 편씩 야근야근 ‘아껴’ 읽어나갔다.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책이다. 룰포의 문장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고 그 서사 또한 결코 대단한 스케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야기는 압도적이다. (죽은 자들의 마을 ‘꼬말라’를 배경으로 한 『빠드로 빠라모』 특유의 문체와 형식을 꼭 한 번 직접 만끽해보시길.) 『불타는 평원』에 실린 단편들은 차라리 ‘콩트’로 분류되는 게 맞다 싶을 정도로 분량이 짧고, 구성이나 형식면에서도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나는 이 작품들까지 읽고 나서야 룰포가 붙들고 있던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듯한 기분이 든다. 그것은 통상적인 혁명소설에서라면 주인공을 맡았을 인물들이 보여주는 나약함과 미성숙함 등등과 연관된다.

일단 『빠드로 빠라모』, ‘꼬말라’ 마을의 주민들이 귀신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나쁜 토호 때문인 게 아니다. 착취 받는 자들 자신의 비겁함과 두려움,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원한 감정이 그들을 살아 있을 때 이미 죽게 만들었고, 죽은 뒤에도 제대로 죽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들에게 연민의 감정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빠드로 빠라모가 무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민들 또한 결코 무고할 수 없다. 착취자의 얼굴에 악인의 가면을 씌운 뒤 피착취민을 순수한 피해자로 만드는 이전까지의 혁명소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지점이 여기 있다.

『불타는 평원』은 그럼 어떤가? 표제작 「불타는 평원」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부에 맞서 싸우는 반란군 내부의 폭력성이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여기서도 누가 더 폭력적인가 따위의 물음은 불필요하다. 정부군이 미친 만큼 반란군도 미쳤고, 정부군이 폭력적인 만큼 반란군도 그렇다. 정부군과 맞붙어 싸우지 않을 때의 반란군을 보자. 그들은 밭과 목장들을 족족 불태우고 여자와 곡식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육한다. “정부군을 상대로 매복을 고집하는 것보다 목장을 습격하는 게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다.

기나긴 전쟁과 폭력에 지쳤으면서도 동시에 이에 취해 있는 이들은 요괴인지 요정인지 구분하기도 애매한 말썽꾸러기 사내 녀석들처럼 보인다. 너른 평원에서 거대하게 일렁이는 화염에 취한 채 밭길 가는 대로 돌아다니는 이 철딱서니들은 정부군에 맞설 때는 반란군이지만 민간인 앞에서는 여지없이 여느 범집 집단과 마찬가지다.

때는 바야흐로 옥수수대가 살갓을 찌르는 털이었는데, 야노에 굴곡을 이루며 펼쳐진 옥수수 밭은 사나운 바람에 바삭 말라 있었다. 그리하여 옥수수 밭에서 시작하여 목장으로 번지는 불길의 더없이 아름다웠다. 야노 자체가 아궁이였다. 갈대밭까지 타 들어가는 불길이 옥수수대 타는 냄새와 달짝지근한 꿀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피워 올렸다. 우리는 짙은 연기를 헤치며 앞으로 나갔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들이 흡사 유령 같았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짐승들을 거둬들여 가족을 베풀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불놀이’에 겸해 그들이 심심풀이로 하곤 하는 ‘투우 놀이’ 장면도 잠깐 보자.

우리는 산양을 가두는 울타리 형태의 둥그런 투우장을 만든 다음, 투우사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빗장 위에 걸터앉았다. 그들은 투우 역할을 맡은 빠드로 사모라가 황소 뿔 대신에 찰라 대는 쇠꼬챙이처럼 예리한 칼끝을 피해야 했다. 정부군 여덟 명은 그날 오후의 제물이, 나머지 민간인 두 명은 다음 날 제물이 되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애를 먹인 상대는 수수깅처럼 삐쩍 마른 농장 집장으로, 그는 빠드로 사모라의 날카로운 칼끝을 요리조리 잘 피했다. 반면에 땅딸보 관리인은 결연하게 죽었다. 어떠한 간교도 부리지 않았다. 말없이 죽어갔다. 칼 앞에서 꿈쩍도 않는 모습이 오히려 죽음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농장 집장은 달랐다. 투우 놀이에 들어가기 전에 빠드로 사모라는 그들에게 망토를 나누어주었는데, 무겁고 두툼한 망토는 적어도 집장에게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었다. 망토의 효용성을 간파하고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상대의 칼을 절묘하게 피했던 것이다. 반면에 집장을 쫓아다니던 빠드로 사모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인내심마저 잃었다. 그는 진짜 투우들이 직진해서 뿔로 들이받는 이전의 방식을 느닷없이 포기하는가 싶더니 꾸아스페코마페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망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틈을 노리다가 늑골을 찌르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늑골을 찌른 집장은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지하지 못한 채 손에 든 망토를 부지런히 움직였다. 마치 귀찮게 달라붙는 말벌 떼를 떼어내듯.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는 순간에 멈추었고, 그제야 그가 다급하게 자신의 옆구리를 손으로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고 몸을 빠져나갔다. 마침내 그가 우리를 뵈히 쳐다보면서 죽사 한복판에 쓰러졌다. 우리는 그의 목을 매달 때까지 그대로 놔두었다. 손을 대봤자 죽음의 시간만 더 늦추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기나긴 멕시코 혁명과 반란들이 남긴 흔적과 메아리의 자장 안에서 성장한 룰포에게 있어 혁명이란 그 이름만으로 가슴 뛰게 하는 무엇이 결코 아니다. 디아스 독재정권의 붕괴 그 자체가 곧 혁명의 성사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달라진 건 없다. 사회 혁명은 인간의 정신과 무관하며 반란군이든 정부군이든, 혁명이 성공했든 아니든 인간 정신은 여전히 고만고만하다. 한때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우리들의 혁명이란 실상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니었을까…….

소설 읽는 수경

어떤 끔찍한 혁명가(歌) — 후안 룰포, 『불타는 평원』



불타는 평원을 배경으로 찍고 까부는 조무래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때의 치기, 공포, 고립감, 무력감으로 똥똥 뭉친 폭력성이다. 그들은 종종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표정을 우리에게 들키고 만다. 그것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약한 아이들의 동그랗고 더러운 얼굴이다. 그들이 열차 하나를 기습하려다 그만 탈선시키고 만, 아주 인상적인 대목을 보자.

그들은 열차가 마치 누군가가 흔들어대듯 좌우로 기우뚱거리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선로를 이탈한 열차는 차체의 중량과 차량 전체를 가득 채운 승객들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열차라 슬픔에 겨워 목이 잠긴 소리로 길게 경적을 울렸지만, 다들 그저 눈을 뜨고 지켜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다. 그 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꼬리를 문 열차가 뒤로, 벼랑 끝으로 밀려나스가 싶더니 꼬리부터, 차량들이 꼬리를 물며 줄줄이 벼랑 밑으로 떨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역시 그들처럼,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끝났다.

이윽고 생존자들이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리를 떴다. 엄습하는 공포감에 온몸이 마비된 채.

여기는 혁명이 실패한 자리다. 아이들이 피운 거대한 불로 환히 밝혀져 있고, 그 환함 때문에 읽는 이는 괴롭고 수치스러워지는 장소. 풀이란 풀은 바싹 마른 거대한 황무지와 그 위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아이들의 대비가 기묘하게 가슴을 치고 간다. ...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위 후기 혁명소설이라 불릴 만한 이야기가 어느덧 모든 문학의 보편적 주제로, 가장 중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by 수경

이달의 선물



은남 쌤께서 토하졌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밥도둑이란 이런 거라는 걸 알았다는! 그리고 짭짤이 토마토 한 박스, 짭짤하고 신선한 토마토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백수영 쌤 달달한 샴페인과 와인 선물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절탁 2학기 뒷풀이에서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향으로 사람 죽이는 천혜향, 그리고 든든한 연잎밥까지.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돼지가 되어갑니다 꿀꿀.

태람이네 외삼촌댁에서 실한 딸기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어 태람이네 큰아버지댁에서 쌀 한 가마니. 오랜만에 흰 쌀밥 먹었더니 부자 된 기분 흐흐.

선민 언니도 딸기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캐나다 가기 전 마지막 방문. 그곳의 맑은 공기 마시며 쌍둥이 자매 은서와 현서는 쑥쑥 크고 있을 겁니다.

불교n의 유명회원 최미혜씨가 원두커피를 들고 '수업 없는 날' 방문했습니다. 이번 학기 중에 볼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또 다른 커피 선물은 만두 쌤이. 간식으로 늘 만두만 해오신다 하여 만두쌤으로 불립니다. 초콜릿의 달콤한 향이 엄청난, 부드러운 커피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잘 마실게요.

혜원이 친구가 직접 만든 자몽청을 2주 연달아 가져왔습니다. 자몽의 과육이 툭툭 씹히는, 아름다운 색의 자몽청입니다. 시원하게 마셔도 좋고, 따끈하게 마셔도 좋고.

월간규문은 매달 말일 혹은 다음 달 초에 스페셜하게 발간됩니다. 발행인 채은